제395호<January 2024>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24년 1월 넷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F-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77조원대 중국 뷰티 시장서 K뷰티의 실력은 [뷰티경제] -----04

美 MoCRA 시행 앞두고 식약처도 나섰다! [코스모닝] ------05

K뷰티, 떠오르는 베트남 시장 공략 본격 [뷰티누리] ----- 05

〈해외화장품 시장동향〉급성장하는 美 화장품 시장 트렌드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06

협회 업무추진현황 12

(미국 수출) MoCRA 총 정리 강의 녹화 영상과 강의 자료-----13

2023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2/29)-----1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안내 (~2024.2.29)-----1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 온라인 강의 실시 안내 -----17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챗봇(코스봇)」 이용 안내 -----18

회원사 뉴스 25

화장품 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77조원대 중국 뷰티 시장서 K뷰티의 실력은? ('24.1.18)

●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4% 대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해 K뷰티의 중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음.이 같은 중국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리스크는 없어졌지만 K뷰티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현지에서 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관건임

● 1월 17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12월 화장품 소매판매 액은 총 6조 4천억원(32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특히 지난해 총 소매 판매액은 총 77조원(4,14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 관련링크:
https://www.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68

K-뷰티의 진격, '미국이 중국 추월' 가능성 첫 감지('24.1.18)

● 중소벤처기업부의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23년 3분기 중소기업의 화장품 미국 수출액이 2.7억달러로 79.1% 증가하면서 중국(2.5억달러 -19.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화장품 수출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초임.

●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중소 인디브랜드의 신흥시장 개척 노력 및 미국·EU·일본 진출 러시에 힘입어 22년(92억달러) 피크를 뛰어넘는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음

- 관련링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979

쇼피코리아, 2023년 결산 키워드 'N.E.W' ('24.1.22)

● 쇼피코리아의 2023년 결산 키워드 'N.E.W'는 △베트남, 태국 등 신규(New) 마켓의 강세 △ 빠른(Express) 배송 및 반품/환불 서비스 제공 △다양해진 K제품에 대한 수요(Want)를 의미함

● 2023년에는 쇼피가 진출한 전 마켓 중에서도 태국과 베트남 등 신흥 마켓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지난해 쇼피 태국에서 한국 셀러들의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음

- 관련링크:
https://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35

[화장품 최신 특허 정보] 2023년 8월 공개 한국 화장품 최신 특허출원 현황 ('24.1.19)

● 2023년 8월 공개된 한국특허는 총 220건으로 전월의 230건에 비해 10건 정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해외특허는 76건으로 전월의 54건에 비해 22건 이상 크게 늘었으며 비율도 35%로 전월의 23%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음

● 2023년 8월 공개된 특허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모, 탈모방지' 분야와 '세정제' 분야가 각 15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고 이어서 '항염증 분야와 '항균제' 분야가 각 14건, '피부 개선' 분야가 12 건, '항노화, 항산화' 분야가 10건의 공개건수를 보였음

- 관련링크: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50713

美 MoCRA 시행 앞두고 식약처도 나섰다! ('24.1.18)

- 식약처는 오늘(18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우리 화장품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FDA의 실무 책임자를 연사로 초빙, MoCRA 관련 웨비나를 오는 31일(수)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번 웨비나는 △ MoCRA에 대한 전체 내용 설명과 함께 △ 실시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임. 웨비나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https://forms.gle/Ha73MHkSLPAZ4Kpy6 을 통해 오는 29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함

- 관련링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237

2024년 중소기업 수출에 2,219억 원 지원('24.1.18)

-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2,219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임. 특히 해외 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중점을 맞추어 구매자(바이어) 발굴이나 인증 획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중소기업 수출 개선세를 '24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 관련링크:
https://www.geniepa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89

중국 공략의 지름길 '라이브커머스' 완전정복('24.1.18)

- 중국의 온라인 판매를 주도해왔던 웨이아와 리자치와 같은 대형 왕홍들이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철퇴를 맞으면서 주춤하는 추세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던 시기에 다시 라이브커머스라는 신종 유통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 전역에서는 다시 온라인 판매의 선봉장 역할을 라이브커머스에 내주고 있는 추세임
-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관련링크:
https://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43254&flag=h

K뷰티, 떠오르는 베트남 시장 공략 본격화('24.1.24)

- 국내 뷰티 업계가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현지 특화 전략, 팝업 스토어 운영 등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임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은 4억9822만7000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중국(27억8494만9000달러), 미국(12억1829만3000달러), 일본(8억605만6000달러), 홍콩(5억808만4000달러), 베트남 순임

- 관련링크: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103707/cat/10

ㅇ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급성장하는 美 화장품 시장 트렌드

2023-11-08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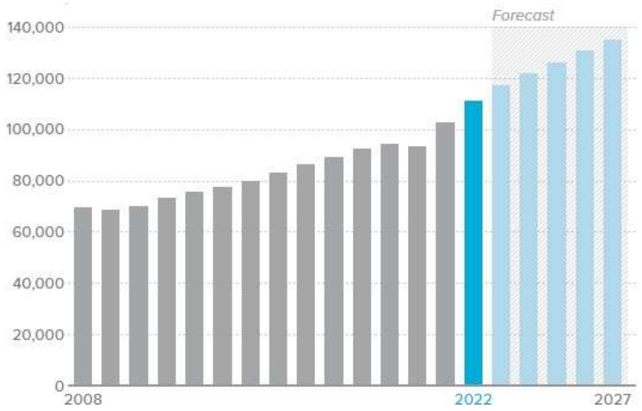
- 2022년 미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전년 대비 8.1% 성장 -
- 유효성분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 증가 -
- 온라인 기반 브랜드, 팬데믹 이후 옴니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 늘리려 시도 중 -
- 팬데믹 이후 빠른 성장세 이어가는 美 뷰티 시장 -

한국 화장품 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북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화장품 시장은 팬데믹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규모는 1106억70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보고서는 프리미엄 뷰티와 퍼스널케어 부분을 중심으로 동 시장이 포스트팬데믹 기간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프리미엄 더모코스메틱(Dermocosmetic, 피부과학(dermatology)과 화장품(cosmetic)의 합성어로 약국 전용 혹은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라인이 전 품목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중저가의 매스 브랜드 역시 수요 강세를 보인 것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유로모니터의 세계 뷰티 고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50%가 효과가 입증된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더모코스메틱 뷰티와 퍼스널케어 제품 시장은 전년대비 무려 19.9% 확대된 55억1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매스 뷰티 부분 역시 시장 규모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재량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2027년 미국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유로모니터(Beauty and Personal Care in the US, 2023년 5월)]

주목해야 할 시장 트렌드: 유효 성분 따지는 소비자와 더욱 중요해진 옴니채널 방식

상당수의 미국 소비자가 피부 개선 효과가 입증된 화장품 유효성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구매 시 피부 고민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화장품 브랜드 디오디너리(The Ordinary)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캐나다 화장품 회사인 데시엠이 2013년 론칭한 브랜드인 디오디너리는 화장품의 주요 유효 성분을 제품명으로 내세우고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브랜드다. 영국의 뷰티·영양체 유통업체인 랜디스케미스트(Landys Chemist)가 선정한 2023년 가장 인기있는 스킨케어 제품 톱10에 디오디너리 제품이 4개나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5월 랜디스 케미스트는 구글 검색량을 토대로 인기 뷰티 제품을 선정해 그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검색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랜디스 케미스트가 선정한 2023년 인기 화장품〉

[자료: Landys Chemist]

미국 최대 뷰티쇼로 꼽히는 아메리카뷰티쇼는 지난 10월 전시회 블로그를 통해 인기 스킨케어 유효성분을 소개했다. 1위는 피부 각질 제거와 여드름 관리, 색소침착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알파하이드록시산(Alpha Hydroxy Acids, AHA)이 선정됐다. 2위는 클렌징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베타하이드록시산(Beta Hydroxy Aci, BHA)으로 여드름 관리와 블랙헤드, 고르지 못한 피부톤 정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4위는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Ceramide)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이 선정됐다. 5위는 비타민 B3의 일종으로 미백기능성 성분인 니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가 뽑혔다. 니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효과 외에도 보습과 피부톤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스킨케어 제품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6위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잘 알려진 레티놀(Retinol)이 꼽혔다.

코로나19 이후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옴니채널 방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 쇼핑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뷰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하는 구매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봤던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객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온 많은 뷰티 브랜드가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기반 클린 뷰티 브랜드로 이름을 알려온 뷰티카운터(BeautyCounter)는 미전역에 16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뷰티 편집숍인 얼타뷰티(Ulta Beauty)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다른 온라인 기반 뷰티 브랜드인 글로시에(Glossier)는 미 전역에 5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세포라와 파트너십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했던 여성용 보디케어 제품 브랜드인 빌리(Billie)도 지난해 월마트를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전망 및 시사점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와 시장 경쟁 격화로 제2위 수출국인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됐다. 팬데믹 이후 견조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뷰티 시장도 동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 시장으로의 전략적 가치도 더욱 높아졌다.

미국의 화장품 수입 시장도 커졌다. 지난해 미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41억6721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3위 수입국으로 자리를 지켰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5억5771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은 13.4%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미국의 스킨케어 화장품 수입 현황(HS Code 3304.99 기준)〉

(단위: US$천, %)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22/'21)
-	전 세계	2,957,163	3,734,926	4,167,213	100	11.6
1	프랑스	600,317	699,880	813,440	19.5	16.2
2	캐나다	476,105	620,075	694,165	16.7	12.0
3	대한민국	388,243	521,610	557,712	13.4	6.9
4	이탈리아	149,103	213,748	309,026	7.4	44.6
5	스웨덴	157,945	275,201	234,511	5.6	-14.8
6	영국	235,614	237,869	227,595	5.5	-4.3
7	중국	162,747	199,566	222,965	5.4	11.7
8	멕시코	123,482	123,665	157,825	3.8	27.6
9	일본	99,888	128,082	151,981	3.6	18.7
10	스위스	50,635	76,789	100,613	2.4	31.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화장품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KOTRA 뉴욕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아마존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활발하게 공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어 각광받는 유통채널이 되기는 하나 브랜딩으로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홍보하는 옴니채널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온라인 판매 의존도가 높은 K-뷰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조언했다. 미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만큼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미국 뷰티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제품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동시에 포스트팬데믹 변화를 반영한 유통채널 진출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자료: Euromonitor, Mckinsey & Company, Landys Chemist, America's Beauty Show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 11. 8.〉

Korea Cosmetic Association

협회 업무추진현황

♦ 추진 현황

ㅇ (미국 수출) MoCRA 총 정리 강의 녹화 영상과 강의 자료

MoCRA에 대한 총 정리 강의 자료와 녹화 영상입니다.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 MoCRA

강의 자료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복사하여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 하신 후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http://helpcosmetic.or.kr/pc/edu/edu03.php?ptype=view&idx=5655&category=

강의 녹화 영상은 아래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복사하여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 하신 후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9_OBs3u7lg&t=106s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812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2023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2/29)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보고기간내에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보고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upload

나. 보고기한: **2024년 2월 29일까지**

※ 생산실적 보고 링크 : https://kcia.or.kr/report/main

※2023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e-mail접수 불가)

※ 원료목록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3.14.)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한 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신 후,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5))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께서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생산실적 보고: 이병수 과장(Tel: 02-785-7985, e-mail:jacklbs@kcia.or.kr)
원료목록 보고: 조안나 대리(Tel: 02-761-4205, e-mail:ancho12@kcia.or.kr)

첨 부: 1) 생산실적 엑셀서식1부. 끝.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협회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가, 나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책임판매업등록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785&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안내 (~2024.2.29)

화장품법 제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협회 원료목록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목록보고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엑셀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24년 2월 29일까지

※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문의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붙 임 :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 보고 메뉴얼 1부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엑셀 서식 1부. 끝.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788&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온라인 강의 실시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였습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개설하여 6월 25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리 운영되며 협회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 **[회원사대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 : 10만원

*****회원사란? 협회 정관 제6조에 의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회사로서 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입니다.**

(회원사 확인 : https://kcia.or.kr/home/inst/inst_company_list.php)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_**일반** : 20만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교육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edu.helpcosmetic.or.kr/main/index.jsp**

※ 해당 교육은 매년 받는 법정교육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703&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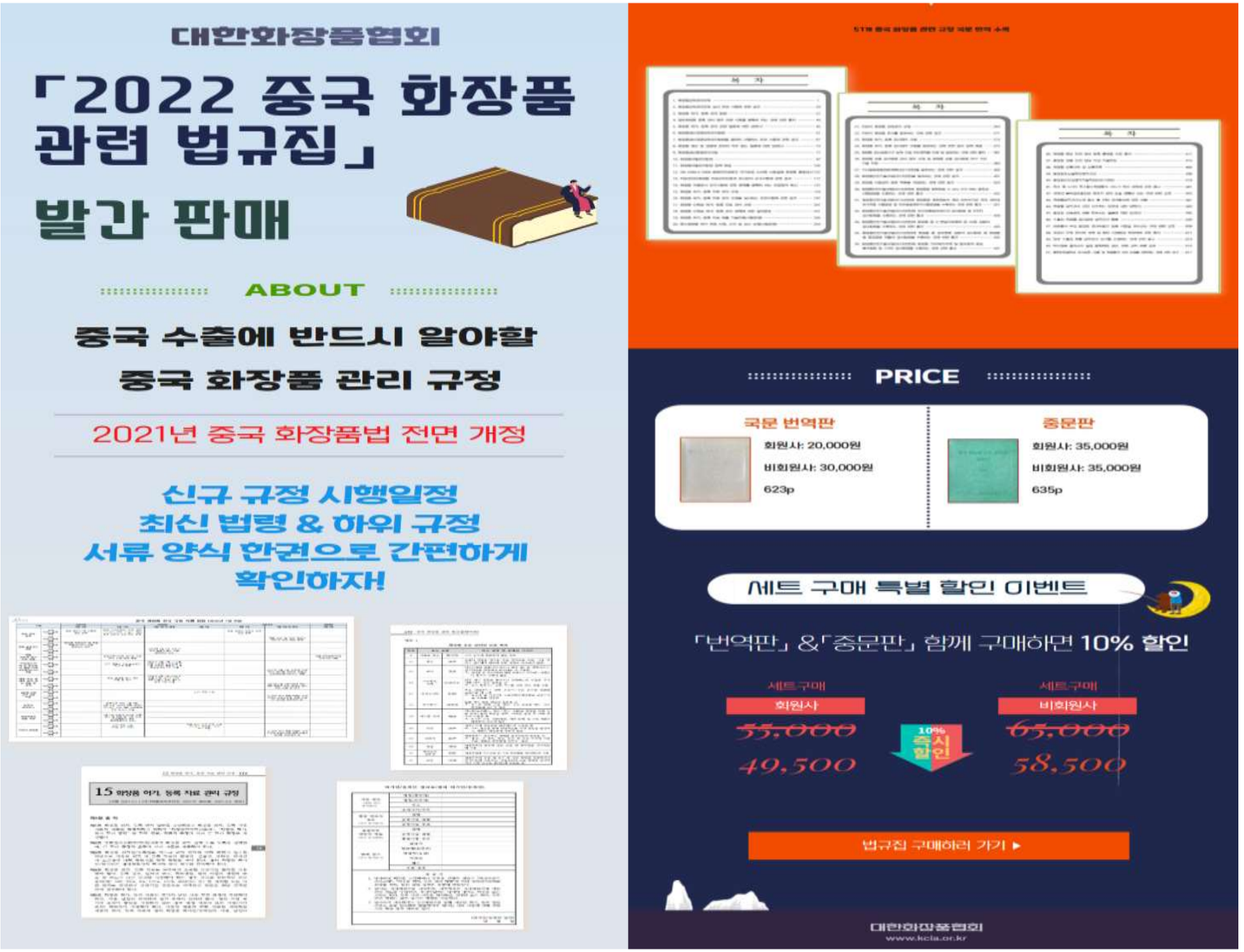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챗봇(코스봇)」 이용 안내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750&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2022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 발간 판매



- 책자 구매링크: https://kcia.or.kr/home/inst/inst_book_list.php

ㅇ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 발간 안내

협회에서는 '19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대만의 화장품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對 대만 화장품 수출절차를 자세히 소개한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세부내용 확인 및 책자 구매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책자 구매링크: https://kcia.or.kr/home/inst/inst_book_order.php?bno=33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SNS를 통해 질병 치료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위 광고 주의 안내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463&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소비자원-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 「화장품 용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에서는

「**화장품 용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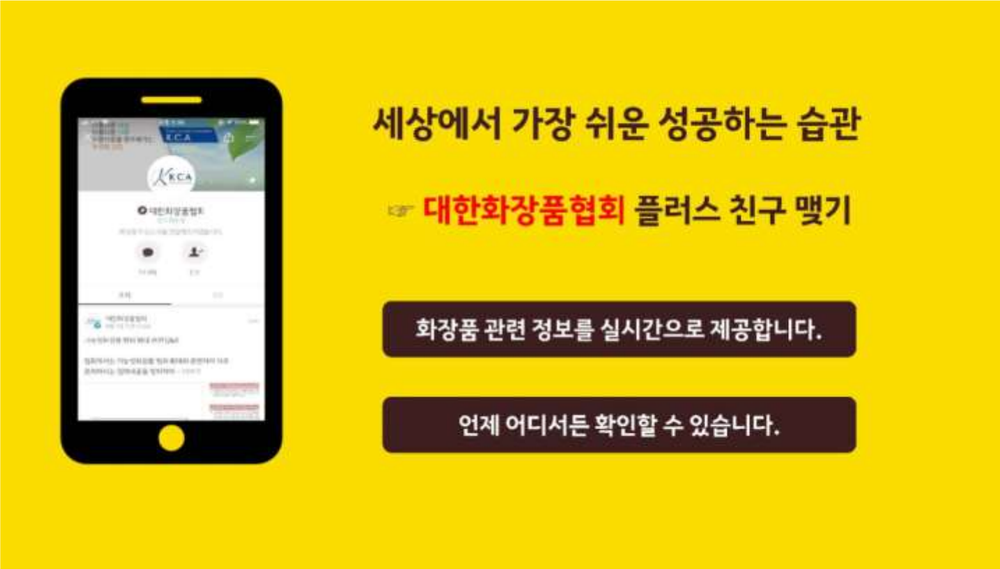
자료는 SNS 게재 및 소비자 안내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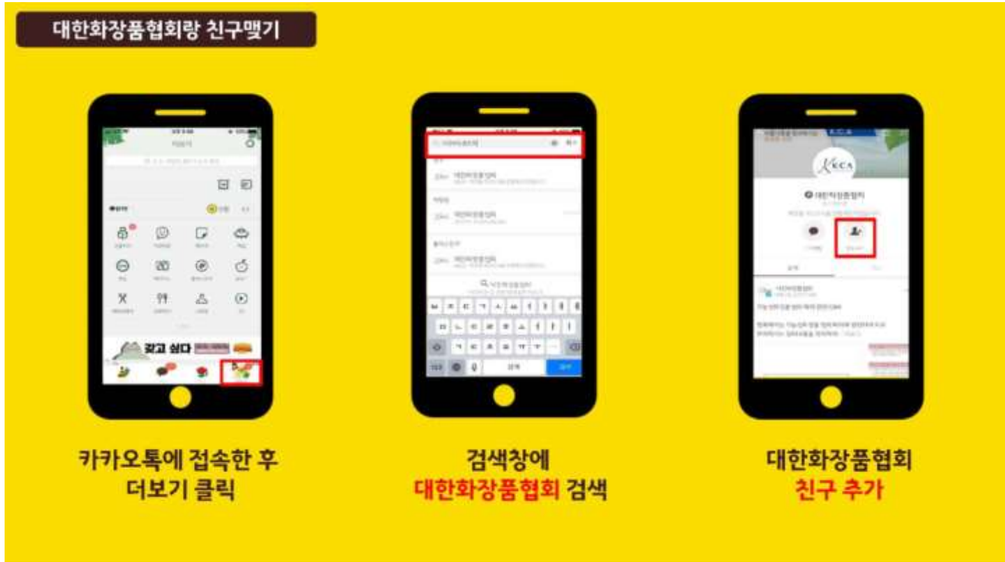
활용하시어 화장품 용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링크: 화장품 용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링크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대한화장품협회"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을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고 실시간으로 화장품 최신 정보를 공유하세요!

https://youtu.be/aw-TudxC4ss

▶ 카카오톡 친구에게 드리는 혜택

1. 화장품의 법령, 정책 정보
2. 화장품과 관련된 교육 정보
3. 해외 수출 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회원사 뉴스

ㅇ [회원사] 중국 수출 최신 정보 알림 신청 안내

1. 우리 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중국 수출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국 화장품 관련 최신 법령
   - 중국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 동향
   - 중국 수출교육/세미나 일정 안내
   - 중국 수출, 법령 관련 세미나 내용 요약
   - 중국 수출 지원사업 안내
   - 기타 중국 수출에 도움되는 정보

2.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의 중국 업무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 회원사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홈페이지 접속 → 협회소개 → 회원사 소개 → 회사명 입력 및 검색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안내

구비서류	① 대표자 이력서 1부 ② 회사소개서 1부 ③ 회사연혁 1부 ④ 사업전개방향 1부 ⑤ 제조판매업등록증(제조업등록증) 사본 1부	
회원의 자격	▪ 정회원 -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준회원 - 화장품 판매자, 원료제조 ·공급자, 화장품연구기관, 화장용구 제조업자
회비	▪ 정회원 - 입회비 : 월회비 × 12월 - 월회비 : 매출액에 따른 차등 적용(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입회비 1,800,000원, 월회비 150,000원 임	▪ 준회원 - 입회비 : 500,000원(정액) - 월회비 : 정회원의 2/3 적용
회원가입시 혜택	▪ 총회 의결권 ▪ 회원사 애로 사항 대정부 건의 ▪ 해외마케팅 지원(중국 상해, 중국 광주, 홍콩, 인코스메틱글로벌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 영문증명서 발급 ▪ GMP 컨설팅 ▪ 해외 수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내 변화정보(법령, 시장 통계, 해외 인허가 대행 명단)제공 ▪ 성분사전(온라인) 정보 제공 ▪ 화장품 관련 정부 실시간 제공(홈페이지, SNS, 코스메틱리포트) ▪ 중국 수출관련 심층자료 제공 ▪ 중소기업 포상 확대 ▪ 회원사 친목 도모를 위한 정보교류 강화(조찬간담회, 정기총회) ▪ 협회 주최 교육(세미나) 등록비 할인 수수료 우대 혜택(발간물, 영문증명수수료, 광고자문, 성분사전) 회원사 홍보(신규회원, 경조사등 홈페이지에 홍보)	
회원가입절차	STEP 1 가입신청 → STEP 2 이사회 승인 → STEP 3 회원가입 완료	
문의	대한화장품협회 경영지원팀 Tel 070-7858-0564	

ㅇ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TALK http://pf.kakao.com/_nLlsxd

http://facebook.com/hikca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